

CJ제일제당, 유네스코와 ‘소녀교육 캠페인’

CJ더마켓서 구매금액 기부 기획전

CJ제일제당은 11일 UN이 지정한 ‘세계 소녀의 날’을 맞아 유네스코와 함께 ‘소녀교육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녀교육 캠페인’은 전세계 여아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글로벌 공익 캠페인이다. CJ제일제당은 세계 전역에서 사업을 펼치는 글로벌 식품&바이오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동참했다.

CJ제일제당은 이달 22일까지 식품전문몰 CJ더마켓에서 ‘이너비 X 소녀교



육 에디션 기획전’을 개최한다. 소비자들이 유네스코 로고와 캠페인 메시지가 담긴 스페셜 패키지의 ‘이너비 아쿠아리치’를 구매하면 일정 금액이 기부금으로 적립돼 유네스코로 전달된다. 이 기부금은 교육 접근성이 낮은 베트남 소수민족 소녀들의 교육환경개선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품을 구매하고 고객에게는 특별 제작한 기념품(마그넷·사진)도 증정한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삼표 정인육학술장학재단, 연천군에 3000만원 장학금
삼표그룹이 우수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삼표그룹 장학재단인 ‘정인육학술장학재단’은 경기 연천군청에 지역 장학생 39명을 위한 장학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천군청에서 진행한 장학금 전달식에서 (왼쪽부터)임일숙 통일평생교육원 교육청소년팀장, 성정훈 NRC 연천사업소장, 김용민 정인육학술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성남 연천군 부군수, 최재범 통일평생교육원장, 객준원 삼표 사회공헌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표



현대백화점 ‘판교 아트 뮤지엄’ 진행
11일 오전 경기 현대백화점 판교점 1층의 열린 광장에서 방문객들이 전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5일까지 백화점 전체를 예술 작품으로 꾸미는 ‘판교 아트 뮤지엄’을 진행한다. /현대백화점

전국 과학관 협업 비대면 과학문화 확산

국립중앙과학관, 원격수업 등 운영

국립중앙과학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과학관들이 협업해 비대면 과학문화 확산 사업을 발굴·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휴관으로 과학관을 방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각 과학관의 주요 볼거리를 모아 유튜브 동영상상을 통해 방영하는 ‘전국과학관 스타전시품 온라인 투어’를 매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과학관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

한 주제를 교과과정과 연계해 학교 원격수업을 지원할 예정인데, 과학관별 전문가들이 양방향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올해 약 10개 소외지역 학교에서 시범 운영 후 내년에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한국과학관협회도 과학관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립과학관 연회비 면제 및 중·소 과학관 방역물품 구입비 등 약 2700만원 상당의 재정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장관 비서관 권순재 △기획재정담당관 김봉덕

부음

▲ 이영숙씨 별세, 이남련(예일평가법인 이사)·이옥경(국민건강보험 보장지원실 팀장)·이무영(코리아중앙대일리 뉴스룸 국장)·이

민영(SK하이닉스 PIR서치랩 팀장)씨 모친상, 남미림(주한미국대사관 경제담당 전문위원)·이현아씨 시모상, 한태영씨 장모상 = 10일 오전 4시30분,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20분. ☎ 031-738-7444

▲ 박인규씨 별세, 박경만(한겨레신문 전국부 선임기자)씨 부친상 = 11일 오전 1시, 강진군 산림조합 추모관, 발인 13일 오전 9시. ☎ 061-430-5444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효력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일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회사에서 업무나 인력 사정 등을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퇴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퇴직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것일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해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 예규 또한 민법 제660조를 적용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기간급으로 정해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해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가 정한 기간(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에도 1개월 간은 근로계약이 존속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무법인 바른

소공연, 소상공인 매장 2000여곳 ‘특별방역’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말까지 1곳당 10회 무료방역 실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소상공인 상점가 특별방역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신청받은 전국 소상공인 매장 2000여 곳을 대상으로 전문 방역 업체가 10여 회 이상의 무료 집중 방역을 실시하게 된다.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 상가를 시작으로 방역 사각지대인 영세 골목상권에 이르기까지 집중 현장방역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 8일 서울 관악구 녹두거리에서 진행한 특별 무료 방역 행사에선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연합회 업종·지역 회장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종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8일 서울 관악구 녹두거리에서 열린 특별방역 행사에서 (앞줄 왼쪽 5번째부터)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종석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공연

김임용 소공연 직무대행은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돈을 들여 매장을 방역하는 등 코로나19와 최전선에서 싸워왔다”면서 “이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도움으로 한 매장당 10여 차례에 달하는 집중 방역을 통해 소비자들이 소상공인 점포를 안심하고 찾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 있

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예종석 회장도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무료방역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난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김성산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별세

금호아시아나그룹에 48년을 몸담은 이끈 김성산 부회장이 11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4세.

김 부회장은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광주일고, 전남대 무역학과를 나와 1973년 금호고속(옛 광주고속)에 입사했다.

김 부회장은 오로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48년 동안 몸담으면서 금호고속, 금호터미널, 금호렌터카와 금호리조트 사장 등을 거쳐 그룹 부회장을 지냈다.

그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사기위인(捨己爲人) 정신을 바탕으로 한 ‘고객행복경영’이라는 경영 철학으로 금호고속을 국내 1등 운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고객을 위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고객 행복과 기업의 성장 발전을 견인한다는 철학을 담아 ‘고객행복경영’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특히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에 부임 후 쌍촌사회복지관 등 복지단체에 10년 이상 후원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빈소는 광주 천지장례식장 302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 오전 7시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